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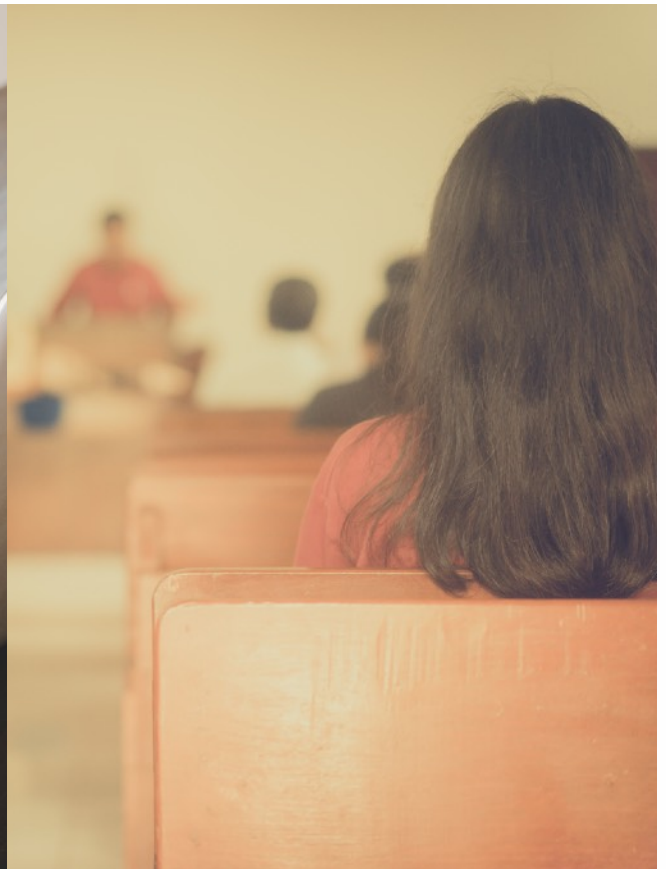
주요 내용

1. [개신교인의 온라인 사역 인식]

출석교회가 현장 예배만 고수할 경우, 17%는 교회 이탈 가능성!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퀴어 축제 찬반 인식
- 2) 혼전동거에 대한 국민 인식
- 3) 한국의 중위연령 변화



출석교회가 현장 예배만 고수할 경우, 17%는 교회 이탈 가능성!

지난 3년 반가량 지속된 코로나19는 사회와 교회에 큰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예배에서부터 소그룹 활동, 심방 등에 이르기까지 교회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이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 주일 예배 설교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줌(zoom)으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였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작년 4월부터 해제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5월 초 '코로나19 비상 상태 해제'를 선언하면서 한국도 5월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료, 즉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알렸다.

출석교회가 있는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올 6월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무려 74%나 되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 성수인가'란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난 점이다. 전통적 신앙관이 깨어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 것 같다. 이에 더해 출석교회가 현장예배만 고수할 경우, 17%의 출석교인은 교회 이탈 가능성을 내비쳤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예배 형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넘버즈 197호>는 온라인 예배/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확인하여, 개 교회에서의 온라인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오프라인 사역의 장단점/한계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인의 온라인 사역 인식 조사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
• 조사 방법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 표본 규모	총 1,000명(유효 표본)
• 표본 추출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 표본 오차	± 3.1% (95% 신뢰구간)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3년 6월 2일 ~ 6월 8일(7일간)
• 연구 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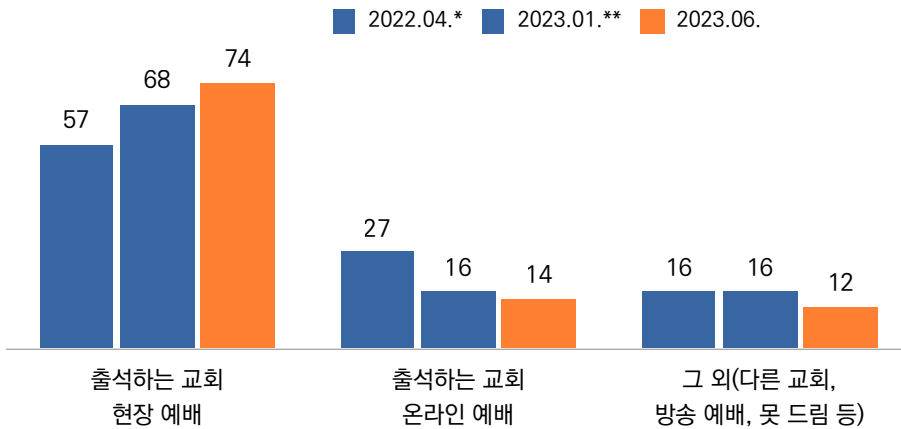
01

[온라인 예배 실태]

현장 예배 회복률 2023년 1월 68% → 6월 74%!

- ▶ 지난 주일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물었다. 그 결과, '출석교회 현장 예배'로 드린 비율이 74%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 예배' 14%, '그 외 방송 예배 등'이 12%였다. 특히 출석 교회 현장 예배가 작년 4월 조사에서는 57%였는데 올해 1월 68%, 이번 조사에서는 74%까지 상승해 교인들이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 현장 예배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 ▶ 그러나 현장 예배 참석률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온라인 예배 감소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지난 주일예배 형태 (출석 개신교인, %)



*자료 출처: 예정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추적조사 개신교인 4차 조사, 202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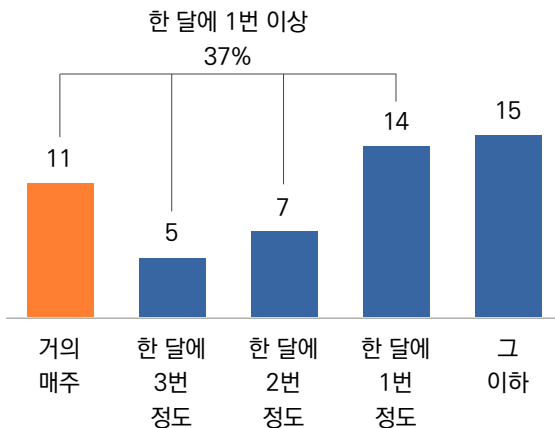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교회출석자 1197명), 온라인 조사, 2022.04.15-25.)

**자료 출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06.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16.)

◎ 개신교인 37%, 한 달에 1번 이상은 온라인 예배드려!

- ▶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은 결과, 적어도 '한 달에 1번 이상'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경우는 10명 중 4명 가까이(37%)였고, '거의 매주'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1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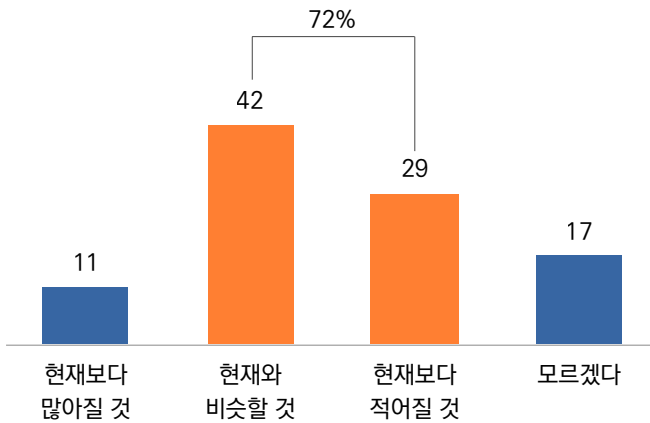
[그림] 온라인으로 주일예배 드리는 빈도 (2023년 기준, %)



◎ 온라인 주일예배, 현재와 비슷하거나 줄어든 것 72%!

- ▶ ‘향후 온라인 주일예배를 얼마나 드릴 것 같은지’를 물었을 때 온라인 주일예배가 ‘현재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11%에 불과했고, ‘현재와 비슷하거나 줄어든 것’이란 의견이 72%로 우세했다. 온라인 예배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향후 온라인 주일예배 예상* (%)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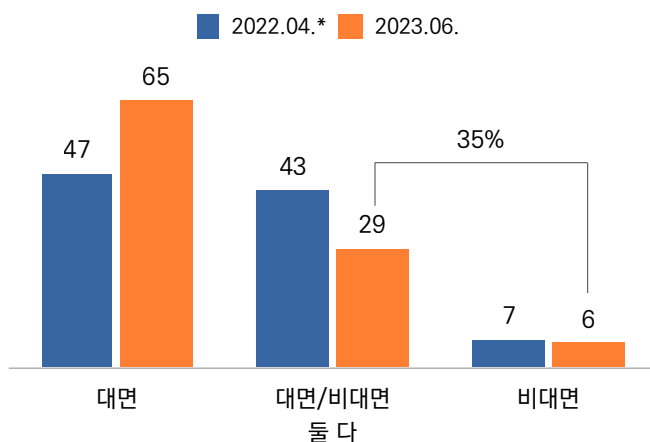
02

[온라인 예배 인식]

‘나에게 적합한 예배는 비대면 또는 둘 다’ 35%!

- ▶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 유형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결과, 출석 교인 3명 중 2명 정도(65%)가 ‘대면’을 꼽아 대면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 ▶ 2022년 4월 조사 대비 ‘대면 예배’는 18%p 증가하고 ‘둘 다’는 14%p 감소한 특징을 보였다.
- ▶ 대면예배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둘 다 또는 비대면’ 선호도 역시 35%로 교인 3명 중 1명 이상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나에게 적합한 예배 유형** (출석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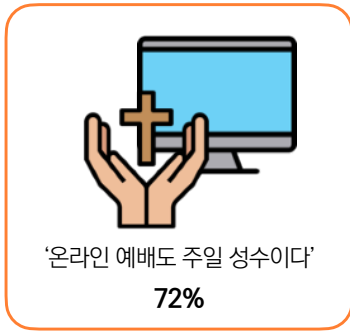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예정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추적조사 개신교인 4차 조사, 2022.05.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교회출석자 1197명), 온라인 조사, 2022.04.15.-25.)

**‘잘 모르겠다’ 등 기타 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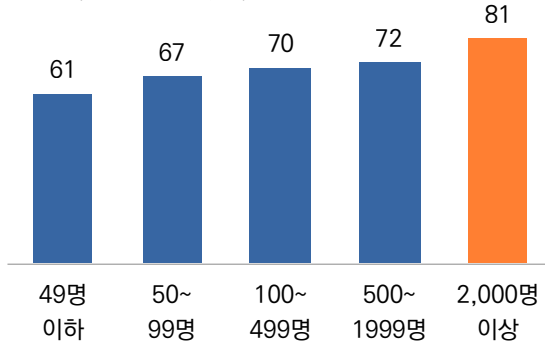
◎ 2,000명 이상 대형교회 교인의 대부분, '온라인 예배도 주일 성수이다'!

- ▶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 성수인가? 출석 교인 중 72%가 '그렇다'고 응답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주일 성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다.
- ▶ 교회 규모별로 '온라인 예배의 주일 성수 인식'을 확인한 결과,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온라인 예배도 주일 성수이다'고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2,000명 이상의 대형교회의 경우 무려 10명 중 8명꼴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림] 온라인 예배의 주일 성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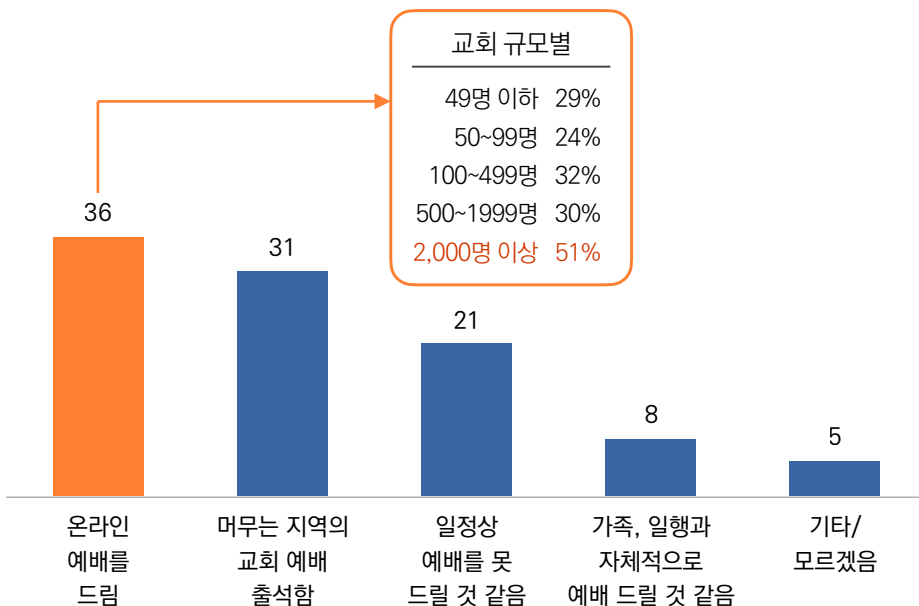
[그림] 교회 규모별 '온라인 예배도 주일 성수이다' 긍정 비율 ('그렇다' 비율, %)



◎ 주일에 타지역 있을 시, '지역 교회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 의향 더 높아!

- ▶ 주일에 여행 등으로 타지역에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 같은지 묻은 결과, '온라인 예배를 드림'이란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머무는 지역의 교회 예배 출석함' 31%, '일정상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음' 21% 등의 순이었다.
- ▶ 타지역에 있을 경우 '온라인 예배' 의향률이 2,000명 이상 대형교회의 경우 절반 정도(51%)로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주일 타지역에 있을 시 예배 형태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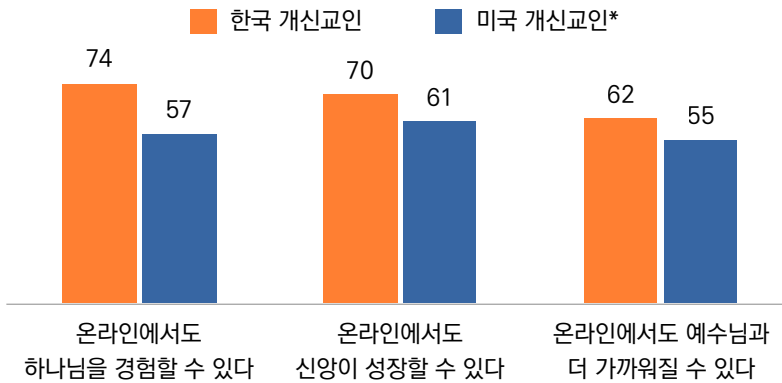
03

[온라인 신앙]

한국 교인, 미국 교인보다 온라인 신앙 활동 수용도 높아!

- ▶ ‘온라인 신앙’ 관련 질문을 통해 한국 교인과 미국 교인 의식을 비교해 보았다.
- ▶ 한국 교인들의 경우 ‘온라인에서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70%),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에 4명 중 3명 정도가(74%) 동의(매우+어느 정도)하여 ‘개인적 신앙’ 측면에서 온라인 신앙 활동에 대한 수용도가 미국 교인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온라인 신앙에 대한 의식 : 개인적 신앙 측면
(‘매우+어느 정도 동의’ 비율, 한국-미국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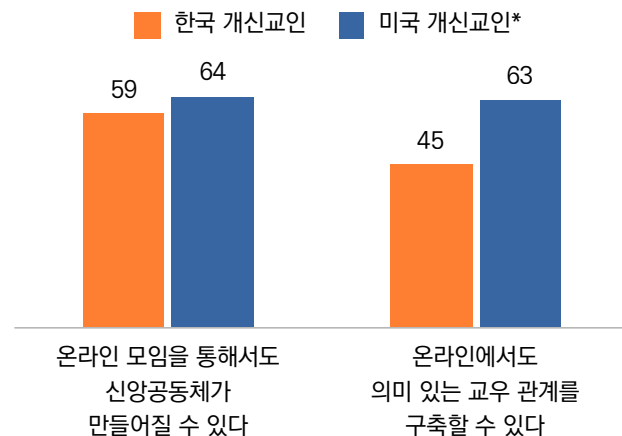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Barna Research, 2023.4.12. (미국 개신교인 1,238명, 2023.02.28.-03.08) (<https://www.barna.com/research/in-person-over-online-church/>)
**4점 척도 질문

◎ 온라인 모임 통해 신앙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59%가 동의!

- ▶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신앙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에 대해 10명 중 6명 정도(59%)가 동의했으며 ‘온라인에서도 의미 있는 교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절반에 못미치는 45%가 동의했다.
- ▶ ‘관계적/공동체 신앙’ 측면에서는 미국 교인 대비 다소 낮은 동의율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었다.

[그림] 온라인 신앙에 대한 의식 : 관계적/공동체 신앙 측면
(‘매우+어느 정도 동의’ 비율, 한국-미국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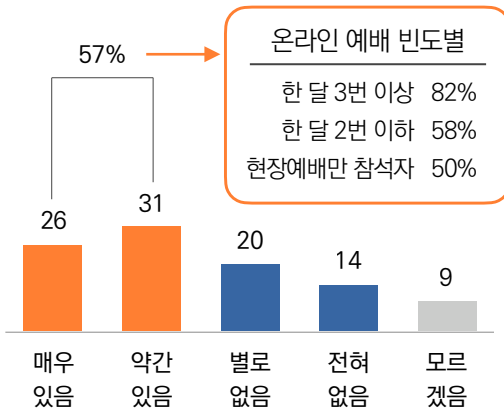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Barna Research, 2023.4.12. (미국 개신교인 1,238명, 2023.02.28.-03.08) (<https://www.barna.com/research/in-person-over-online-church/>)
**4점 척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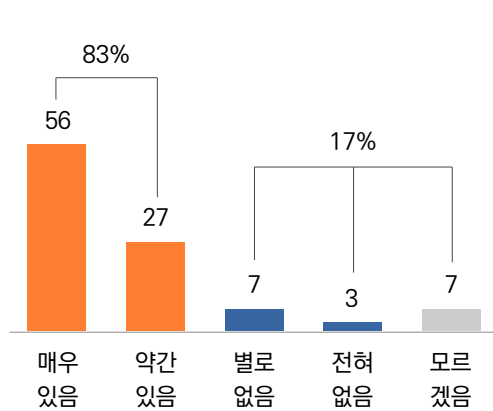
◎ 출석교회가 현장 예배만 고수할 경우, 17%는 교회 이탈 가능성!

- ▶ 출석교회가 온라인으로만 모이기로 결정한다면, 성도들은 계속 현 교회에 출석할까? 개신교인의 57%는 계속 출석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인의 경우 지속 출석이 50%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반대로 교회가 온라인을 버리고 현장 예배만 드린다면 계속 현 교회에 출석할 것인지를 묻은 결과, 17%는 이탈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출석교회가 온라인으로만 모인다면 지속 출석 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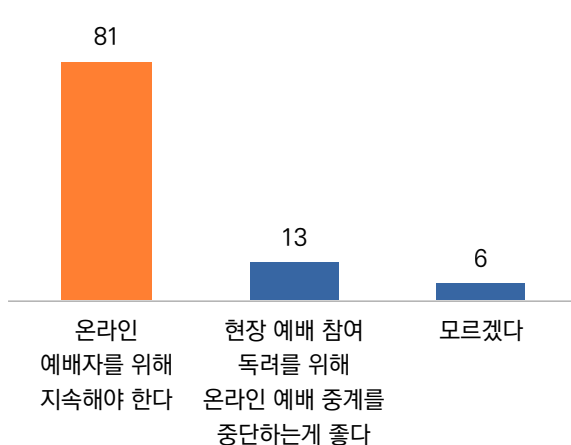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가 현장 예배만 드린다면 지속 출석 의향 (%)



◎ 온라인 예배 중계, '온라인 예배자를 위해 지속해야 한다' 81%!

- ▶ 위에서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를 중지하더라도 교회 출석 의향은 매우 높게 응답 했지만, '온라인 예배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 온·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교회 출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 중계 지속 여부를 질문했는데, '온라인 예배자를 위해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8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현장 예배 참여 독려를 위해 온라인 예배 중계를 중단하는 게 좋다'는 13%에 그쳤다.

[그림] 출석교회의 실시간 온라인 예배 중계 지속 여부 (현장+온라인 동시 진행 교회 출석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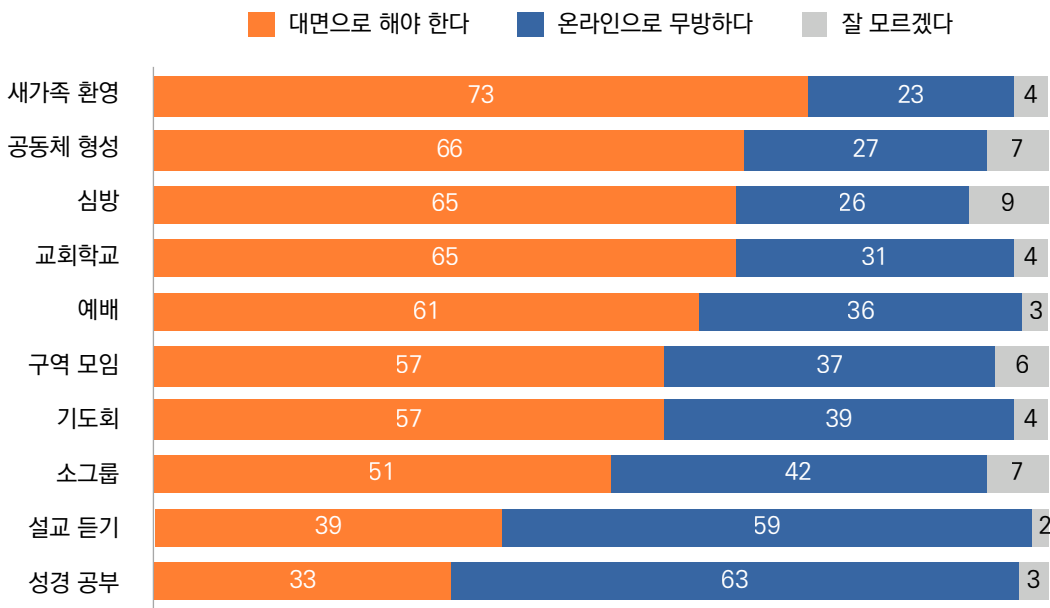
04

[온라인 사역에 대한 태도]

대면 사역이 더 적합하지만, 온라인 사역 수용도 최대 60%대!

- ▶ 새가족 환영, 공동체 형성, 교회학교, 예배 등 10가지 교회 사역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 대면 혹은 온라인 사역 적절성 여부를 물었다.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성경 공부'와 '설교 듣기'를 제외한 대다수 사역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 '대면 사역'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 ▶ 반면, 설교 듣기,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무방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겨 주목된다.
- ▶ 전체적으로 예배를 포함 교회 전체 사역에 있어 온라인 수용도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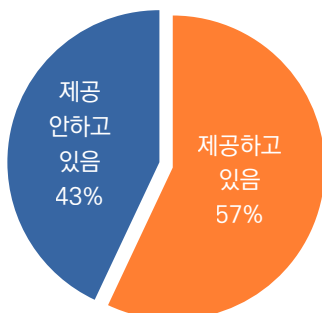
[그림] 교회 사역의 대면 vs 온라인 적합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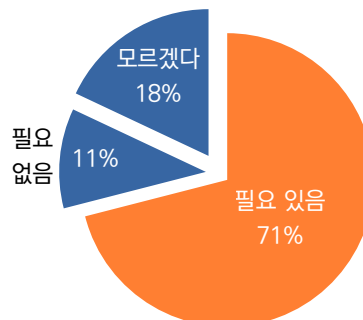
◎ '교회의 온라인 신앙훈련 필요하다' 71%!

- ▶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현재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는 57%로 나머지 10개 중 4개 교회는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그러나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0명 중 7명(71%) 정도여서 공급(온라인 신앙훈련 제공)과 실제 교인들의 수요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출석교회의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 제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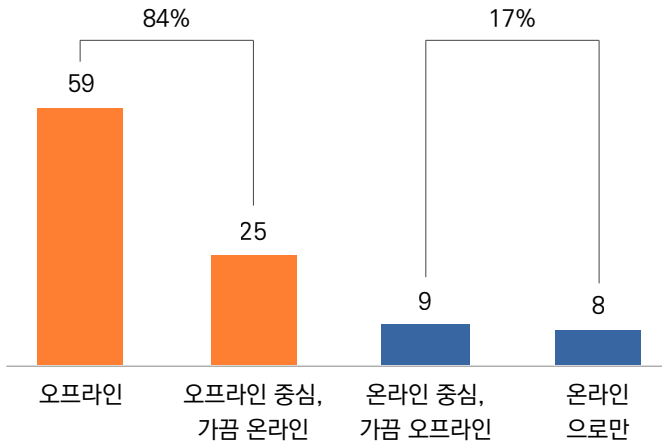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의 온라인 신앙훈련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



◎ 소그룹 모임 시 ‘온라인 중심’ 운영은 17%에 불과!

- ▶ 소그룹 참석자들에게 소그룹 운영 형태를 물은 결과, ‘오프라인’ 59%,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되, 가끔 온라인 활용’ 25%로 대부분(84%)의 소그룹 활동은 대면 모임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심으로 하되, 가끔 오프라인으로 모임’ 혹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그림] 자신이 속해 있는 소그룹 운영 형태 (소그룹 참석자, %)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에게는
‘개신교인의 온라인 예배 의식 조사’ 보고서 전문을 추후에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이번 온라인 사역 관련하여 넘버즈 조사는 코로나 엔데믹에 가까운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온라인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설문 분석에서 온라인에 관련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인식변화와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대면 예배에 대해 긍정성과 참여율이 매우 높아졌음이 돋보인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주일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관하여 1년 전 조사(목회데이터연구소, 2022.04)에 비해 '출석교회 현장 예배' 참석하는 비율이 57%에서 74%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교인 상당수가 온라인 예배에서 벗어나 현장 예배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또한 '향후 온라인 주일예배를 얼마나 드릴 것 같은지를 물었을 때' 온라인 주일예배가 '현재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11%에 불과했고 '현재보다 비슷하거나 줄어든 것'이란 의견이 72%로 우세했다는 점에서 현장 예배의 대약진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온라인'은 여전히 중요하다. 동시에 이번 조사가 보여주는 특징은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상수교인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출석자 37%는 한 달에 1번 이상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전체 교인 72%가 '온라인 예배도 주일 성수이다'라고 답하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일 성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2,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의 경우 10명 중 8명꼴(81%)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주일에 타지역에 있을 시 '지역 교회 예배'보다 본인 소속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의향이 더 높다는 것이다. 주일에 여행 등으로 타 지역에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묻은 결과, '온라인 예배를 드림'이 36%로 제일 높았고 이어서 '머무는 지역의 교회 예배 출석함' 31%로 나타났다. 이는 명절이나 여가를 위해 타지역으로 성도들이 출타할 경우 온라인 예배는 교회로 하여금 소속 교인들을 묶어놓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0명 이상 대형교회의 경

우 절반 정도가 타지역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점에서 온라인 예배 지속 여부를 고민하는 대형교회는 참고할 만한 통계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성도들에게 온라인은 신앙경험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다. 이에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에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개인적 신앙'의 측면에서 온라인 교회는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출석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중지하더라도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의향은 매우 높게 응답되었지만 10명 중 8명은 '온라인 예배 지속'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힌 점이다. 더 나아가 신앙 경험을 위해서 '교회의 온라인 신앙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에 이른 점으로 보아 성도들은 온라인을 통한 신앙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출석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현장 예배만을 드린다고 할 때, 17%의 성도들이 출석의사가 없거나 유보적인 것('별로 없음'과 '전혀 없음', '모르겠음' 포함)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온라인은 여전히 중요한 실천 양태임을 보여준다.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는 이분법적인 논쟁을 벗어나서, 온라인이 신앙 경험의 유의미한 상수가 되었음을 주목하고 교회마다 상황에 적합한 온라인 사역을 만들어 가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동시에 '비대면' 방식이 가지는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대면 방식'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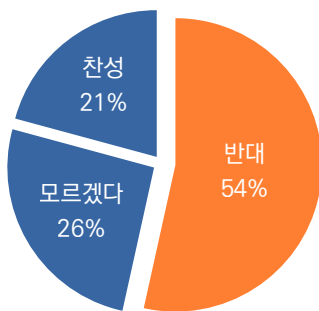
- 1.[퀴어 축제 찬반 인식]
- 2.[혼전동거에 대한 국민 인식]
- 3.[한국의 중위연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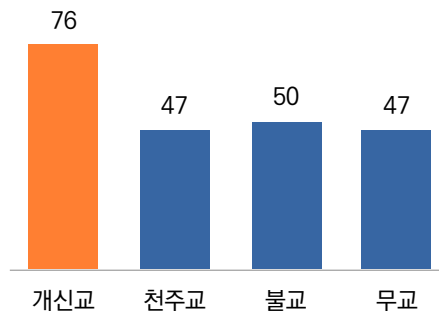
개신교인 4명 중 3명, 퀴어 축제 반대!

- ▶ 제24회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7월 1일부터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데, 이를 앞두고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한국 리서치)가 발표되었다. 퀴어 축제 개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21%, '반대' 54%, '모르겠다' 26%로 나타나 국민 전체적으로 퀴어축제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 높게 나타났다.
- ▶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 신자의 '퀴어 축제 반대' 의견이 7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외에 '불교인' 50%, '천주교인' 47%로 비슷하게 응답됐다.

[그림] 퀴어 축제 개최 찬반 의견



[그림] 종교별 퀴어 축제 반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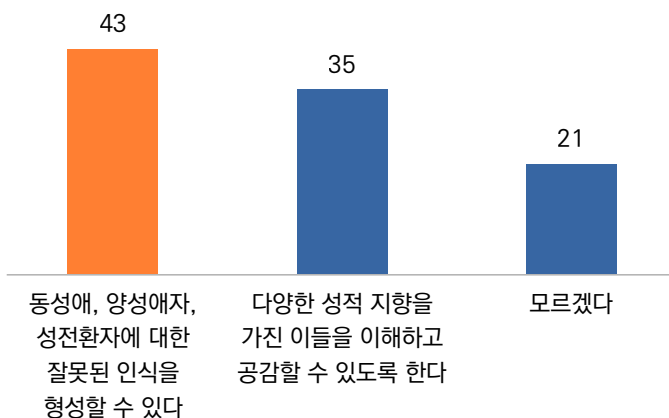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퀴어 축제 여론 및 퀴어 콘텐츠에 대한 인식, 2023.06.21.(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6.09.-06.12)

◎ 퀴어 관련 콘텐츠,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43%

- ▶ 퀴어 관련 콘텐츠(예능,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도서 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진술문을 하나씩 제시하고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동성애, 양성애자, 성전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었다. 다만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도 35%로 나타나 3명 중 1명 정도는 '퀴어 콘텐츠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인 점이 눈에 띈다.

[그림] 퀴어 관련 콘텐츠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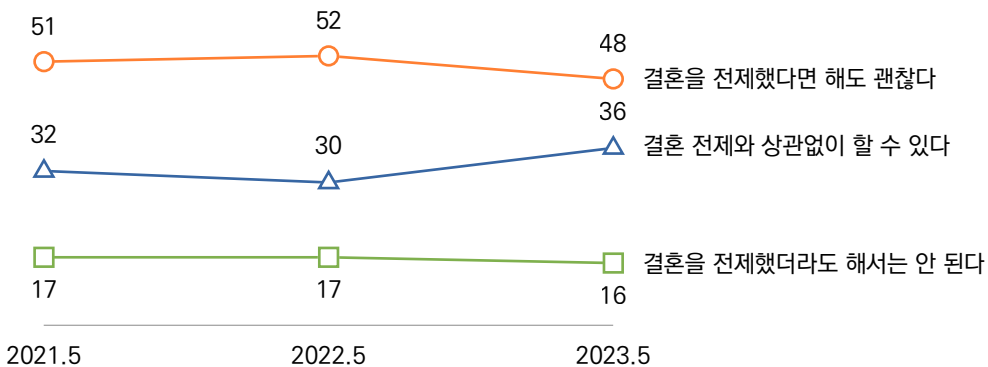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퀴어 축제 여론 및 퀴어 콘텐츠에 대한 인식, 2023.06.21.(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6.09.-06.12)



성인 3명 중 1명(36%) 이상, 결혼 전제하지 않더라도 ‘동거할 수 있다’!

- ▶ 최근 종영된 TV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3’에서 미혼 주인공 남녀가 부모 허락 없이 동거 하는데 주변으로부터 지지받는 장면이 나온다. 대중매체가 혼전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보내고 있는 요즘이다.
- ▶ 최근 발표된 결혼 전 동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한국 리서치)가 있어 소개한다. 2021~2023년 혼전 동거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결혼을 전제했다면 동거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절반을 유지하고 있었고,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는 응답이 36%로 작년 대비 6%p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인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은 ‘결혼 전제 여부’를 떠나 동거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림] 결혼 전 동거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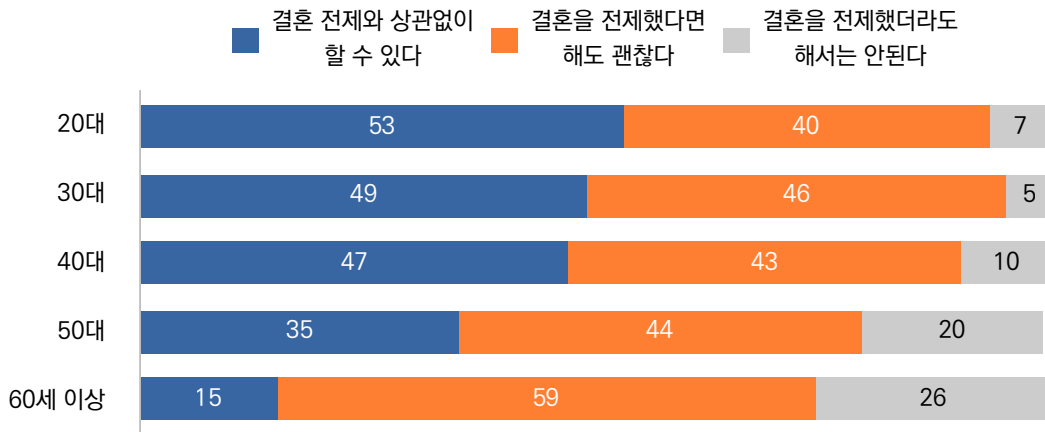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 결혼인식조사(혼전 동거 등에 대한 인식)', 2023.06.21.(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5.26.-05.30)

◎ MZ세대의 절반, 동거는 결혼 전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 ▶ 연령별로 결혼 전 동거 인식에 어떤 차이를 보일까? 2030세대, 즉 MZ세대의 절반이 ‘결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동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반면 60세 이상은 15%에 불과해 세대 간 동거 인식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연령별 결혼 전 동거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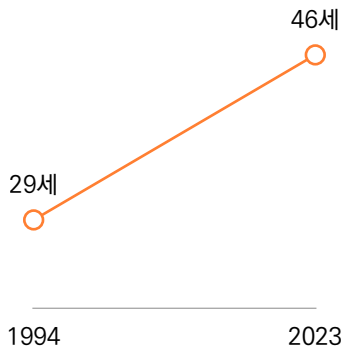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 결혼인식조사(혼전 동거 등에 대한 인식)', 2023.06.21.(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5.26.-05.30)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한국인 중위연령, 1994년 29세에서 2023년 46세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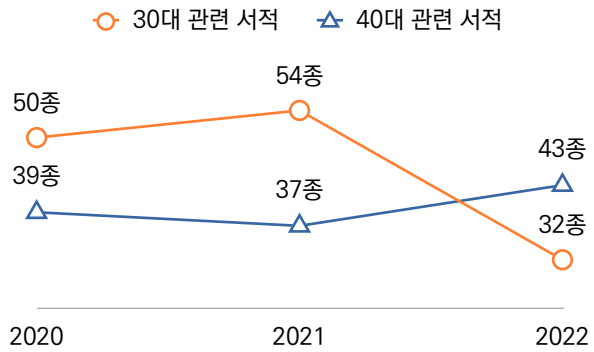
- ▶ 한국인의 중간 허리인 '중위연령'이 30년 전과는 판도가 달라졌다.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말한다. 1994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29세였으나 2023년은 46세로 30년 새 17세나 훌쩍 높아졌다.
- ▶ 최근 출판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데 교보문고에 따르면 '출간 도서 종수'도 40대 관련 책이 30대 관련 서적을 추월하였는데, 40대 관련 서적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중위연령 추이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서른, 마흔 관련 출간 도서 종수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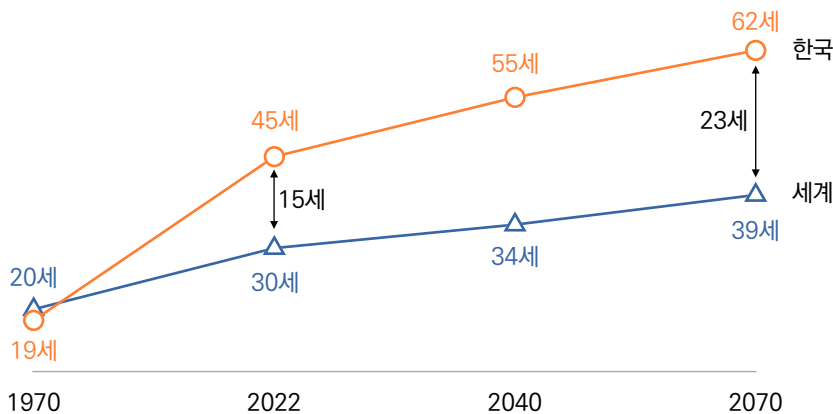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나이 먹은 독서 시장... '마흔'이 '서른' 제쳤다, 2023.06.08.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3/06/08/UIEQUFELMBDAJGDYG7NVTJCH2Y/)

◎ 2070년, 한국의 중위연령 62세로 세계 중위연령 39세와 크게 벌어져!

-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1970년 19세, 2022년 45세, 2040년 55세, 2070년 62세로 한 세기 사이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 ▶ 반면 세계의 중위연령은 1970년 20세에서 2070년 39세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세계의 중위연령 격차는 2022년 15세에서 2070년 23세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세계와 한국의 중위연령 전망



*자료 출처 : 통계청 블로그,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2.09.23. (https://blog.naver.com/hi_nso/222882415741)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47호 \(2023년 6월 4주\)](#)

- 정당 지지도, 한반도 평화, 경제 측면 주변국 관계 인식, 경제 전망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99호 \(2023년 6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등

◎ 사회 일반

[20대 90%가 “결혼을 한 가정에 차 한 대쯤은 필수”](#)

조선일보_2023.06.24.

["세계 살기 좋은 도시 1위 빈...서울·부산은 아시아 4위·6위"](#)

연합뉴스_2023.06.23.

[아직도... “야한 옷이 성폭력 원인” “술 취한 피해자 탓”](#)

국민일보_2023.06.22.

[“당장 20만원도 없다”...급전 고리대출에 손 벌리는 사람들](#)

매일경제_2023.06.25.

[출생 미신고 2236명...베이비박스에 1000명, 나머지는](#)

중앙일보_2023.06.23.

[2023 개인 취향과 도덕성의 상관관계 관련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_2023.06.23.

◎ 아동 / 청소년

[초등학생 40% 성인용 영상 시청, 4년 만에 2배로](#)

연합뉴스_2023.06.22.

[“24세 이전에 처음 경험했어요”...24만명에 달한다는 ‘은둔청년’](#)

매일경제_2023.06.25.

◎ 경제 / 기업

[고물가에...직장인 77% “최저임금 1만1000원 이상 돼야”](#)

조선일보_2023.06.25.

[가상자산 인식 개선 아직 멀었나...긍정 평가 단 ‘9%’](#)

매일경제_2023.06.25.

[“가불도 복지”... 젊은 직원들에게 인기](#)

조선일보_2023.06.21.

[지금 직장인은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

매일경제_2023.06.2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건강**

[채소 매일 먹는 한국인 10% 불과... 안 먹는 이유 1위는?](#)

헬스조선_2023.06.19.

[임종 6개월 전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의사들 생각은...\]](#)

헬스조선_2023.06.15.

[성인 절반 이상 하루 한 끼 혼밥...‘이것’ 발생 위험 높아져](#)

동아일보_2023.06.23.

◎ **국제**

[美 낙태권 폐기 1년, 찬성 25州 vs 반대 25州... 내년 대선 뇌관으로](#)

조선일보_2023.06.26.

[강제이주 가정 85% “식량 못 구해”... 학업 중단·아동 영양결핍 고통 심화](#)

더미션(국민일보)_2023.06.22.

◎ **기독교 / 종교**

[개신교인 56% 온라인 헌금 긍정적... “십일조 한다” 64%](#)

더미션(국민일보)_2023.06.22.

[“현장 80% VS 총회 30%” 이중직’ 찬성 온도 차, 왜](#)

더미션(국민일보)_2023.05.29.

[미 성도 온라인 예배 1년 만에 32%→15%로 뚝](#)

더미션(국민일보)_2023.06.22.

[“아버지의 부재, 미국 기독교 쇠퇴 주요 원인”](#)

기독일보_2023.06.11.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